

<서평>

##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

*Jesus Through Middle Eastern Eyes:  
Cultural Studies in the Gospels*

케네스 E. 베일리 저, 박규태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이윤정\*

### 들어가는 말

이 책은 케네스 베일리(Kenneth Bailey)가 1935년부터 1995년까지 60년동안 중동에 거주하고 40년간 신약성경을 가르치면서, 중동의 문화와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해한 복음서의 이야기를 집필한 것이다. 모두 6부에 걸친 32장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셈어권 중동 문화 속에서 숨쉬고 살아가며 그 문화에 참여했던 중동의 그리스도인들의 눈에 비추어, 복음의 원래 의미를 복원하려는 노력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저자는 지난 2000년여 동안 복음서 위에 쌓여온 서구신학자들의 오해를 걷어내며 직접 몸으로 체득한 중동문화의 렌즈를 착용하고, 고대 중동문화를 공통분모로 했던 시리아어, 히브리어/아랍어, 콥트어, 아랍어 등의 역본과 중동의 많은 주석과 연구자료들을 사용한다. 무엇보다 필자가 반대한 분량의 이 책을 쉽고도 흥미롭게 읽어내려 갈 수 있었던 배후에는 역자의 정갈하고도 심도 있는 번역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

\* 한국성서대학교 구약학 강사, 한국신학정보연구원 연구원

구약 전공자인 필자는 헬라어로 기록된 복음서의 본문이 예수께서 사셨던 셈어 세계에 더욱 가까운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배경을 가지고 어떻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해석이 예수님의 생애와 행적과 사역을 어떻게 의미 있게 만들고 있는지에 주목하였으며, 이 책을 읽는 동안 신선한 감동을 받았음에 감사한다. 본 서평에서 이 책의 방대한 내용을 모두 다룰 수는 없지만, 주요한 내용을 필자의 서평과 함께 정리한 후에 전체적인 논평을 시도하고자 한다.

## 1. 예수의 탄생

저자는 누가복음의 ‘예수탄생 이야기’(눅 2:1-20)를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한다. 먼저 그는 요셉과 마리아가 밤늦게 베들레헴에 도착하여 곧바로 예수를 출산한 것이 아님을 설명한다.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적절한 숙소를 찾거나 도움을 구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을 보냈으며, 그 마을의 누군가가 자기 집에 요셉과 마리아를 ‘환대’하며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 이유는 다윗의 도시라고 불리는(눅 2:4) 요셉의 고향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자손 집안인 요셉을 외면할 리 없었을 것이며, 환대 문화를 지닌 중동의 촌락 공동체는 아기를 출산하면 상황이 어떠한 도움을 베풀어 보살펴야 한다는 책임을 느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 집 주인의 가족은 자기 집의 객실(*κατάλυμα*; 눅 2:7)<sup>1)</sup>에는 다른 손님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과 출산을 앞둔 마리아를 자신들이 거하는 큰 방으로 맞아들이는 친절을 베풀었던 것이다. 물론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때에도 마을 산파와 다른 여자들이 도왔을 것이며, 마리아는 아기를 낳고 강보에 싸 뒤 가족이 쓰는 방 아래쪽에 있는 구유<sup>2)</sup>에 눕혀졌을 것이다. 이와 같이 예수는 환대를 받으며 태어나셨다.

1) 성경에 나오는 여관은 그리스어로 *πανδοχείον* (눅 10:34)이 아니라 객실(*κατάλυμα*)을 말한다.

2) 저자는 그 당시 베들레헴의 소박한 시골집에는 가족이 쓰는 큰 방과 오로지 손님에게만

또한 저자는 ‘의로운 사람 요셉’(마 1:18-21)으로 인해 예수의 탄생이 있을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 요셉이 지닌 의로움은 이사야(사 42:1-6)가 ‘고난 당하는 종’에서 노래하던 윤리를 뛰어넘는 더 높은 차원의 정의였다. 마음 속의 생각(ἐνθυμέομαι; 마 1:20)인 상심과 분노(θυμός; 눅 4:28/ θυμώω; 마 2:16)를 은혜로 승화시킬 줄 아는 이런 정의를 이해하는 시각이 요셉에게 박혀있지 않았다면, 예수는 태어나시지 못했을지 모른다. 예수는 비천하고 배우지 못했으며 배척당하던 목자들(눅 2:8-20),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등장하는 현자들(마 2:1-12), 예수 계보에 나오는(마 1:1-17)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마리아와 같은 여자들과 남자들, 이방인과 유대인, 죄인과 거룩한 자, 억압 받는 자와 억압하는 자 모두의 구원자가 되실 분이였다. 이와 함께 예수께서 구속하시기 위한 약의 깊이는 헤롯의 잔악한 행위로 드러나게 되었으며 성육신 하신 예수의 생애는 철저한 악함으로 시작하시게 되었음을 알려 준다. 저자는 이렇게 ‘예수의 성육신은 완벽했다!’고 외친다.

## 2. 산상 설교와 주기도

저자는 예수께서 “복이 있나니”라고 이름을 붙인 사람으로 시작하는 산상 설교(마 5:1-12)절의 아홉 째에서, ‘복이 있다(μακάριος)’의 의미는 히브리어의 ‘복이 있다(כָּשֵׁן)’<sup>3)</sup>와 비슷한 것으로, 이미 행복이나 행운이 존재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임을 주장한다. 어떤 이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동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이미 누리는 영혼의 상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독특한 신앙의 기쁨을 가리킨다. 따라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미 그 나라를 소유했으며, ‘슬퍼하는 자’는 깊은 상실로 말미암아 고난과 슬픔을 겪지만

---

내주는 방이 있었을 것이며, 밤에는 가족이 쓰는 큰 방 아래쪽으로 소나 나귀를 들여놓았고 그 방 안에 구유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구유는 사람들이 기거하는 방바닥을 파서 만든 것이거나, 나무로 만든 뒤에 가족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옮겨다 놓은 것이었다.

3) 이것은 기원과 간구의 복(εὐλογέω; 777)을 의미하는 것과 다르다.

그 고난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체험할 수 있다. ‘온유한 자’는 약속 받은 땅인 온 세상을 이미 유업으로 차지하는 복을 얻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궁핍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신실함을 지키다가 모욕과 핍박을 받는 자’는 이미 복이 있는 자이다.

또한 저지는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람어인 ‘아버’로 부르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마 6:5-13), 이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는 ‘호 11장’과 ‘탕자의 비유’에서 정의된 ‘아버지’로서, 당신의 거룩하심 속에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의 본질에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리고 저지는 아람어와 아주 가까운 고시리아어 역본을 근거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는 일용할(ἐπιούσιον) 양식’ 주시기를, 먹을 양식이 부족할까 ‘두려워함’으로부터 구해주시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음을 강조한다. 또한 저지는 용서가 필요한 죄의 본질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을, 고시리아어 역본, 페쉬타, 하르켈 역본에 나오는 아람어의 ‘호바’에서 살핀다. 즉 마태 (마 6:12)가 사용한 빛(ὀφείλημα)이라는 의미와 누가(눅 11:4)가 사용한 빛지다(ὀφείλω)와 죄(ἁμαρτία)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아람어 ‘호바’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만 다 이행하지 못한 의무와 책임, 그리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하지 말았어야 할 일들 모두에 대해 하나님과 이웃에게 거듭 용서를 구하고 베풀 것을 가르치심을 주장한다.

### 3. 예수의 극적 행위와 여자들

저지는 특히 복음서의 본문에서 복음서 저자들이 활용할 수 있었던 전승들을 기록하고 해석할 때 그들이 가졌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예언적 수사 틀(prophetic rhetorical template)<sup>4)</sup>과 중심부 정점의 주제

4) 그는 중동 인들이 고대와 현대에 걸쳐 수 천년 동안 시를 짓고 산문을 써왔던 동방적

를 발견한다.

예수의 극적 행위 가운데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심’의 이야기(눅 5:1-11)에서 저자는 중심부 정점에 ‘자연계 기적’의 내용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를 감싸는 수사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발견한다. 베드로는 이러한 ‘자연계의 지식을 지닌 예수’께서 말씀이 아닌 하나님을 택하고 계심을 발견한다. 다른 헌신을 하시는 예수의 진정한 거룩함과 만난 베드로는 자신이 부정하고 더러운 죄인임을 느끼고, ‘선생(ἐπιστάτης)’에서 ‘주님(κύριος)’이신 예수로 바뀐다. ‘맹인과 삭개오’ 이야기(눅 18:35-43, 19:1-9)에서 저자는 예수께서 ‘억압받는 자’를 고쳐주시고 ‘억압하는 자’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사건임을 밝힌다. 눈먼 걸인의 이야기는 두 차례의 걸인과 군중의 대화, 두 차례의 예수와 걸인이 나누는 대화로 수사 구조를 이룬다. 군중은 ‘나사렛 예수’라고 일러주지만 걸인은 ‘다윗의 자손’이라 부른다. 그리고 예수를 직접 ‘주(κύριος)’라 부르면서 자기 눈이 밝아져 보기를 갈망한다고 요청한다. 이 걸인은 분명 주로 받아들인 예수를 보길 간절히 원했던 것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예수의 말씀과 함께, 군중들의 반응은 무관심과 적대감에서 찬송으로 바뀐다. 한편 삭개오 이야기는 완벽한 고리구조를 지닌다. 정점의 중심부에서 예수는 뜻 밖에도 삭개오를 값진 사랑을 받을 사람으로 택하신다. 그리고 삭개오를 향한 군중의 적대를 예수를 향한 분노로 바꿔 놓으시며, 자신의 소유를 위한 부자 삭개오를 다른 사람을 위한 부자 삭개오로 바꿔놓으신다.

이 책에서 ‘예수와 여자들’의 주제는 단일 주제로서는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저자는 중동사회 속의 여성의 위치에 비추어,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의 여성관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시각을 통찰력 있게 제공한다. 여자의 위치가 남자보다 분명 아래였던 예수 시대에도 예수의 제자 중에 여자 제자들이 있었으며, 예수께서는 남자는 물론 여자에게도 자신의 메시지와 가르침을 강력히 그리고 신중하게 전하셨음을 주장한다.

---

시각의 수사법에 히브리어 평행법이 다양하게 결합되어서 창조적인 통일성을 이루는 전체를 구성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복음서 저자가 예수께서 여자를 남자와 동등한 위치까지 끌어올리시는 공동체의 이야기들을 선택하여 제시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예수께서는 ‘우물가에서 만난 여자’의 이야기(요 4:1-42)에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직접 말을 건네셨다. 그리고 그녀를 하나님과 참된 예배의 본질을 깊이 설명하는 말씀을 듣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고르셨다. 결국 이 여자는 자신이 사는 마을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여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남자들에게 증언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인물이 되었다. ‘수로보니게 여자’ 이야기(마 15:21-28)에서 예수께서는 여자와 여자의 딸, 그리고 제자들을 배려하신다. 처음에는 예수께서 한 이방 여자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 같은 냉담한 마음을 드러내시는 것 같았다. 그러나 예수는 그 과정에서 어려운 시험을 내시고 영생을 주시는 가장 힘든 시험을 통과한 이 여자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시며, 그녀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다. 예수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의 이야기(요 7:53-8:11)에서 간음한 여인과 이를 고발한 자들 모두에게 삶의 개혁을 요구하신다. 고발자들의 양심에 도전을 던지시는 동시에 여자에게도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엄중한 책임을 지우신다. 그 여자와 남자들 둘 다 잘못이고 둘 다 죄를 지었고 둘 다 살아가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신이 다쳐도 여자를 구하려는 의지로 십자가의 값진 사랑을 여자에게 베풀어주신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만난 여자’의 이야기(눅 7:36-50)에서 예수께서는 당신이 상처를 입으면서까지 이 알지도 못하는 부정한 여인에게 값진 십자가의 사랑을 공개적으로 베푸신다. 그리고 ‘과부와 재판관 비유’(눅 18:1-8)에서는 기도할 때 가져야 할 확신 및 끈기와 관련해서 본받을 모델로 여자를 제시하시며,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비유’(마 25:1-13)에서 저자는 예수께서 당대의 종교 문화 속에 존재하던 남녀간의 틈을 메우기 위해,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인 지혜로운, 혹은 어리석은 여자 열명을 비유로 고르셨음을 강조한다. 중동의 학자인 이븐 알 타이이브의 주석에 의하면,

이 비유는 유월절을 기념하는 모임을 만들거나 혼인식이 효력을 가지려면 있어야 하는 젊은 남자 열 사람 비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 4. 예수의 비유들

마지막으로 저자는 ‘예수의 비유들’이라는 주제로 이 책의 백미(白眉)를 장식한다. 저자는 이 본문들에서도 역시 예언적 수사 틀을 발견하고 중심부의 핵심과 구조의 열개를 세밀하게 살피며, 중동의 문화와 역본들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이 장에서 필자는 많은 비유들 가운데 좀 더 흥미로운 특징을 지닌 본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가운데 하나가 ‘나사로와 부자 비유(눅 16:19-30)’이다. ‘나사로와 부자 비유’에는 제멋대로 살면서 자신의 욕구로 가득 찬 한 부자와 예수의 비유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가진 나사로(Λάζαρος)가 나온다. 저자는 이 나사로의 이름이 히브리어 이름인 ‘엘르아살 (Eleazar)’로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사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물론 이 비유의 주제는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정의와 사회적 책임, 그리고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말해준다. 그리고 죽음 위의 삶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저자는 이 비유에 당황스러운 정도의 신학적 내용이 풍부하게 담겨있음을 주목한다. 나사로는 헌 데가 가득하고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를 채우려는 거지였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았다. 그러나 대다수의 아랍어 역본은 개들이 나사로의 헌데를 핥는 행동을 ‘심지어, 혹은 게다가’ 나사로를 괴롭히는 것으로 본 영역본과 해석을 달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ἀλλὰ) 개들이 와서’의 구절에서 오히려 개들은 나사로를 괴롭히는 부자와는 달리, 나사로의 친구가 되어 상처를 알아주었음을 밝힌다. 그리고 오랜 세월 고통을 겪은 나사로는 온유한 사람으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보이는 반응을 통해 의미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한다. 나사로는 아무 힘없이 고난을 당하던 시절에도 힘을

가진 지금도, 그를 괴롭혔던 이가 그에게 봉사를 요청하는 것을 들으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부를 분배하시는 것이나, 부자가 그 재물을 남용하는 것에 불평하지 않는다. 나사로는 음부에서 자신과 부자와의 관계가 바뀌었지만 이를 기뻐하지도 않으며, 고통의 장소에서 자기 사중을 들어달라는 요청에도 항의하지 않는다. 나사로가 이생의 고난에 보인 반응과 내생에서 은연 중에 부자를 용서한 것을 볼 때, 이는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와 함께 하셨고 줄곧 그를 도와주셨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자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도움을 거부했다. 그에게는 돈이 있었고 자기 일을 홀로 처리했다. 지옥에서 부자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청했지만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저자는 이 비유의 초점이 복수를 통해 이루어지는 정의가 아니며, 모든 이에게 주어지는 좋은 선물과 고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는가에 있다고 주장한다. 나사로의 침묵은 참 자유의 웅변이었으며, 나사로는 진정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였다는 것이다.

‘열 므나의 비유’에서 저자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로 해석된 ἐν ῥῷ와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로 해석된 τί διεπραγματεύσαντο를 중동의 시각으로 해석한다. 그에 의하면 ἐν ῥῷ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장사하여 많은 돈을 벌라’는 의미가 아니다. 이것은 정치적 과도기로 불안한 시대였던 예수 시대의 중동지역에 비추어 그 다음 구절과 연결하면, ‘내가 돌아올 때, 혹은 내가 돌아올 것이므로’의 의미가 적합하다. 이 귀인이 알고 싶은 것은 많은 이들이 귀인을 거부하고 그의 통치를 거부하는 세상에서 그가 없는 동안 위험을 무릅쓰고 충성스러운 종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할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이다. 또한 시리아어와 콥트어 역본, 대다수의 아랍어 역본은 τί διεπραγματεύσαντο의 의미를 서구인들이 해석해 온 ‘종들이 장사하여 무엇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가 아니라, ‘종들이 주인이 자리를 비운 위험한 시기에도 얼마나 많은 거래를 했는지’, ‘얼마나 주인에게 공개적으로 충성했는지’, ‘그의 명령에 얼마나 신실하게 순종했는지’를 밝히고 있다고 주장한다.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알려진 ‘고귀한 포도원 주인과 그 아들 비유’에서, 저자는 이야기의 절정이 일직선으로 나열된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리모양의 수사 구조 중심부에 나온다면, 이 중심부의 절정은 ‘포도원 주인의 독백’이 된다고 주장한다. 포도원의 주인은 농부들이 그의 종에게 저지른 폭행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무장도 시키지 않은 채 홀로 포도원으로 보내면서 주인의 고결함을 깨닫길 소망한다. 그리고 영역 본들과 달리 아랍어 역본들에서 그 다음 구절은 포도원 주인의 철저히 약자가 되는 선택이 그들로 하여금 그 아들 앞에서 수치를 느끼게 할지 모른다(*ἴσως τοῦτον ἐντραπήσονται*)고 번역된다. 그러나 포도원의 농부들은 유업을 차지하길 소원하며 주인의 아들을 죽인다. 따라서 이 비유의 초점은 그의 백성을 다시 돌이키시려고 당신 아들을 통해 당신을 철저히 약한 모습으로 내어주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와 성육신과 대속의 큰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 나가는 말

무엇보다 이 책이 필자에게 주었던 감동은 저자가 제공한 중동의 시각들이 예수의 말씀과 교훈, 그리고 예수의 생애와 행적을 새롭게 살아 움직이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또한 서구 문화의 관점을 벗어나, 동방 문화의 새로운 시각으로 복음의 내용을 더욱 빛나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필자에게 아랍어와 시리아어, 라틴어와 콥트어, 그리스어로부터 번역되고 있는 아랍어 역본이 어떤 성경번역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지, 고시리아어 역본, 페쉬타, 하르켈 역본 등의 성경 역본들이 얼마나 신빙성 있는 논증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의 의문이 여전히 아쉬운 채로 남아 있다. 그러나 새로운 깨달음으로 다가온 ‘거룩하심 속에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의 본질에 공함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윤리의 차원을 뛰어넘는 정의를 제시하시는 하나님,’ ‘당

신 아들을 통해 당신을 철저히 약한 모습으로 내어주시려는 하나님,' 그리고 '비천하고 배우지 못하고 배척당하는 약한 자, 황금과 유행과 몰약을 드리는 현자, 여자와 남자, 이방인과 유대인, 부정한 죄인과 거룩한 자, 억압받는 자와 억압하는 자 모두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대속,' '인생에 허락하신 선물이나 고난에 대해 우리의 반응이 만들어내는 의미가 중요함을 일깨우시는 예수님의 교훈' 등의 해석들은 우리에게 신학적이고도 목회적인 통찰을 제공해준다고 하겠다.